

SEMINAR 4

THE PROPHECIES OF DANIEL (2)

다니엘의 예언 (2)

www.korbible.net

세미나 4: 다니엘의 예언 (2)

1. 다니엘 7장 - 개관

느부갓네살이 큰 "신상" (다니엘 2장)에 대한 꿈을 꾸고 몇 년 후 선지자 다니엘은 네가지 짐승에 대한 무시무시한 꿈을 꾸었다. 이 꿈은 다니엘 7:2-14에 묘사되어있고 7장 나머지 부분은 꿈에 대한 해석을 설명하였다.

우리는 느부갓네살 꿈의 신상을 이룬 각기 다른 금속들이 BC 606 바벨론 시대 부터 현재 우리의 시대에 걸쳐 다른 세상 왕국을 의미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다니엘 7장에 있는 다니엘의 꿈은 이와 비슷하지만 세상 권력을 짐승으로 비유하였다. 다니엘 7장에는 2장에 나와있는 예언에 더 많은 상세내용이 포함 되어 있다.

2. 4가지 짐승에 대한 다니엘의 계시 (Dan 7:1-14)

질문: 다니엘이 본 "큰 바다"에서 나오는 네가지 짐승은 무엇이었는가?

- 첫번째 짐승은 _____ 와 같았다. (4절)
- 두번째 짐승은 _____ 와 같았다. (5절)
- 세번째 짐승은 _____ 와 같았다. (6절)
- 네번째 짐승은 _____ 놀라웠다. (7절)

이제부터 이 네 짐승들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고 이에 관한 세상 역사의 성취를 알아보자.

SEMINAR 4: THE PROPHECIES OF DANIEL (2)

1. DANIEL CHAPTER 7 - INTRODUCTION

Many years after King Nebuchadnezzar had his dream of the great "image" (Dan Ch.2), the prophet Daniel experienced a horrible dream about Four Beasts. The dream is described in Dan 7:2-14 and the interpretation was given in the remainder of the chapter.

We might remember that the different metals displayed in Nebuchadnezzar's image represent different world empires from the time of Babylon in BC 606 until our present day. Daniel's dream in chapter 7 is a similar prophecy but uses beasts (wild animals) to symbolise the world powers instead. It also adds a lot more detail to the vision given in Ch.2.

2. DANIEL'S VISION OF 4 BEASTS (Dan 7:1-14)

Question: What were the 4 beasts that Daniel saw coming out of the "Great Sea"?

- The first was like a _____ (v4)
- The second was like a _____ (v5)
- The third was like a _____ (v6)
- The fourth was _____ and terrible. (v7)

We will now examine these four beasts in greater detail and investigate their fulfilment in world history.

3. 7장의요점

- **큰 바다 (2절):** 그 네가지 짐승들이 "큰 바다"에서 나왔는데 "큰 바다"는 "지중해"의 옛 이름이다 (여호수아 9:1과 비교). 그러므로 이 예언은 우리의 주의를 유럽과 중동지역에 돌린다. (즉: 중국, 미국, 호주 등과 같은 나라를 제외)
- **짐승** 짐승들은 왕국을 의미한다. 다니엘 7:17 에서 말하기를; "그 네 큰 짐승은 네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이 왕들은 23절에서 나타나듯 주요 "왕국들"을 가리킨다;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 **빨** 빨은 네번째 "짐승"의 왕국 때에 나오는 나라들이다. "그 열 빨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다니엘 7:24)

4. "사자"의 이상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다니엘 7:4)



- **앗수르/바벨론 (BC 604~BC 536)** - 이들은 선지자 예레미야에 의해 "사자"의 제국이라 불렸다.: "이 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앗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뼈를 꺾도다." (예레미야 50:17) 바벨론 왕국은 다니엘서 2장에 나왔던 느부갓네살의 신상에서의 "정금으로 만든 머리"에 해당한다.

3. PRELIMINARY POINTS

- **The Great Sea (v2):** The 4 beasts are seen coming up out of the "*Great Sed*" which is the ancient name for the "Mediterranean Sea" (compare with Josh 9:1). Therefore, the prophecy directs us to that Europe/Middle East region of the world. (ie: excludes areas such as China, USA, Australia etc)
- **Beasts** represent Kingdoms. Dan 7:17 says; "*Those great beasts, which are four, are four kings which arise out of the earth.*" These kings represent major "Kingdoms" as is indicated in v23; "*The fourth beast shall be a fourth kingdom on earth, Which shall be different from all other kingdoms . . .*"
- **Horns** represent kingdoms springing up from the fourth "beast" kingdom. "*The ten horns are ten kings who shall arise from this kingdom.*" (Dan 7:24)

4. THE VISION OF THE "LION"

"The first was like a lion, and had eagle's wings. I watched till its wings were plucked off; and it was lifted up from the earth and made to stand on two feet like a man, and a man's heart was given to it." (Dan 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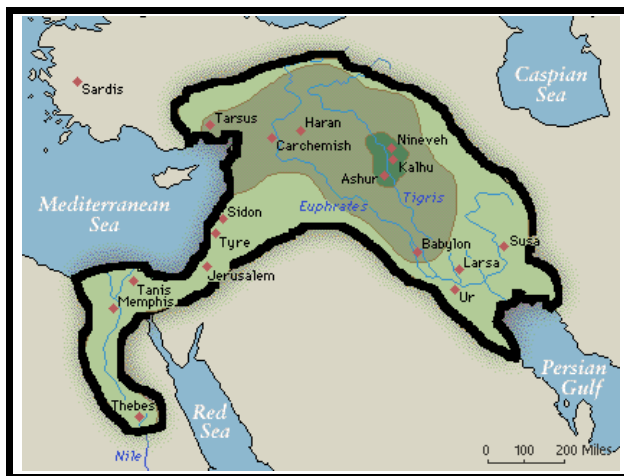


- **Assyria/Babylon (BC 604-BC 536)** - These were called the "Lion" empires by the prophet Jeremiah: "*Israel is like scattered sheep; The lions have driven him away. First the king of Assyria devoured him; Now at last this Nebuchadnezzar king of Babylon has broken his bones.*" (Jer 50:17) The Kingdom of Babylon corresponds to the "Head of Gold" of Nebuchadnezzar's image in Daniel chapter 2.

“사자”의 이상 (계속.)

- **날개가 뿔뿔:** 그 날개는 앗수르 제국의 제도를 가리킨다. 고고학자들은 앗수르 제국의 멸망으로부터 날개달린 사자의 형상에 대해 밝혀내었다. 날개가 펼쳐진 것은 (즉: “독수리의 날개”) 이 짐승이 소유했던 영토의 범위가 확대했음을 나타낸다. 앗수르 제국은 애굽 (이집트)의 일부분과 그 남쪽지역, 또한 소아시아 북쪽과 동쪽지방까지 점령하였다. “날개가 뿔뿔”으로써 바벨론이 앗수르 왕국을 차지하게 되었을 때 그 원거리 지역 영토를 잃게 되었다.

앗수르 제국 (630BC)



바벨론 제국 (606B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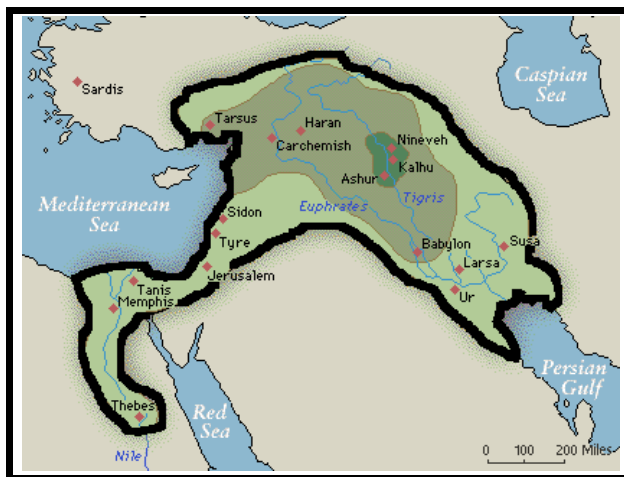
•

사람의 마음을 받은 사자: 앗수르 군대는 그들이 점령한 나라의 민족들을 매우 잔인하게 대하였다. 그러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정권에 올라 그의 종속들을 좀 더 자비롭고 나은 방법으로 대접해 주었다. 그는 젊은 유대 포로 다니엘과 같은 사람에게도 귀를 기울일 줄 아는 “마음”을 가졌다. 후에 그가 하나님께 대하여 교만하여 졌을 때 성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인생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일곱 때를 지나리라..”. (다니엘 4:16)

THE VISION OF THE "LION" (cont.)

- Wings plucked off:** The wings represent the Assyrian rule of the empire. Archaeologists have unearthed statues of lions with wings from the ruins of the Assyrian empire. Wings outstretched (ie: "eagles wings") indicate the wide expanse of territory that this beast possessed. The Assyrian Empire occupied parts of Egypt to the south as well as a north and eastern section of Asia Minor. The "plucking of the wings" caused the loss of these remote dominions when the Babylonians took over the Assyrian Kingdom.

Assyrian Empire (630BC)



Babylonian Empire (606BC)



- Man's heart given to the lion:** The Assyrian armies were extremely brutal to the people of the nations they conquered. However, when King Nebuchadnezzar of Babylon came to power, he was more humane and treated his subjects in a better way. He had "the heart" to listen people like Daniel who was a young Jewish captive himself. Later on in life when Nebuchadnezzar displayed arrogance toward God the Bible says, "*Let his heart be changed from that of a man, Let him be given the heart of a beast. . .*". (Dan 4:16)

5. "곰"의 이상

"다른 짐승 곧 들짐은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의 잇
사이에는 세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
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
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
며 " (다니엘 7:5)



- **메대-바사 (BC 536 - BC 334)** - 바벨론 후에 일어난 이 "두번째" 왕국은 메대-바사였다 (즉: 메대와 바사(페르시아)). 이는 바사왕 고레스가 BC 334년에 바벨론 도시를 습격하고 점령하면서 일어났다. 이 왕국은 다니엘 2장의 "은으로 된 가슴과 팔"에 대응한다.
- **몸 한편을 들림:** 이 왕국의 첫 시기에는 메데에 의해 통치되었다. 바사의 고레스왕은 오래지 않아 메데 왕 (**Astyages???**)에게 적대하여 일어났고 자신이 그 두 나라의 통치자가 되었다. 바사는 메대-바사 제국의 남은 기간을 계속해서 통치하였다. (다니엘 8:3과 다니엘 8:20을 비교해보라- "한 뿔은 다른 뿔 보다도 길었고")



- **잇사이의 세 갈빗대:** 메대-바사는 그들의 제국에 세계의 주요 영토를 더했다. 이 영토는 애굽, 리디아 왕국, 그리고 바벨론이었다. 이 세 지역에는 각각 통치자가 임명되었는데 (다니엘 6:2를 보라) 다니엘이 그 중 한명이었다.
- **많은 고기를 먹음:** 메대-바사 "곰"이 먹은 영토는 바벨론이 인도까지 영토를 확장한

것 보다 훨씬 더 넓었다.

5. THE VISION OF THE "BEAR"

" And suddenly another beast, a second, like a bear. It was raised up on one side, and had three ribs in its mouth between its teeth. And they said thus to it: 'Arise, devour much flesh!' " (Dan 7:5)



- **Medo-Persia (BC 536 - BC 334)** - The "second" kingdom to arise after Babylon was Medo-Persia (ie: The Medes and the Persians). This occurred when the city of Babylon was captured in a surprise attack by the Persian King, Cyrus in BC 334. This empire corresponds to the "Chest and arms of Silver" in Daniel chapter 2.
- **It was raised up on one side:** The kingdom was briefly ruled by the Medes in the first phase of the kingdom. Cyrus of Persia soon revolted against the Median King, Astyages and promoted himself as King over the joint empire. The Persians continued to rule for the rest of the long period of the Medo-Persian Empire. (Also compare Dan 8:3 with Dan 8:20 - "*one horn was higher than the other*")



- **Three ribs in its mouth:** The Medo-Persians added three main territories to their original empire. These were Egypt, the kingdom of Lydia, and Babylon. These three regions were each appointed a governor (see Dan 6:2) of which Daniel was one.
- **It devoured much flesh:** The territory which the Medo-Persian "Bear" devoured was far greater than that of the Babylonian empire extending as far as India.

6. “표범”의 이상: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다니엘 7:6)



- **그리스 (BC 334 - BC 67):** 세번째 왕국은 그리스로 다니엘 2장에 나온 “눅으로 된 배와 넓적다리”와 상응한다. 이 표범은 매우 빠른 동물로써 그리스 제국에 걸맞은 상징이다. 마케도니아의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은 10년 안에 바사 제국을 완전히 점령하였다.

- **등에 새의 날개 넷이 있음:** 표범은 빠른 동물이지만 날개가 있는 표범은 그보다 훨씬 더 민첩하므로 알렉산더 대왕의 매우 빠른 점령을 암시한다. 네 날개는 알렉산더가 33세의 나이로 운명한 후 그리스 제국이 네개의 지역으로 분리된 것도 의미한다.

- 이 짐승은 머리가 넷이었다: 이것은 알렉산더의 죽음 이후 알렉산더의 네명의 군대장관들의 통치 하에 있던 네개로 분열된 그리스 제국을 의미한다.



네개의 머리는:

- | | |
|------------|---------------------------|
| - 리시마쿠스: | 트라키아, 비티니아, 북 소아시아, 페르가툼. |
| - 카산더: | 마케도니아, 그리스. |
| - 셀레우쿠스: | 시리아, 바벨론, 바사(페르시아). |
| - 프톨레마이오스: | 애굽(이집트), 팔레스타인, 리비아. |

6. THE VISION OF THE "LEOPARD":

"After this I looked, and there was another, like a leopard, which had on its back four wings of a bird. The beast also had four heads, and dominion was given to it. " (Dan 7:6)



- **Greece (BC 334 - BC 67):** The third empire is that of Greece which corresponds to the "Belly and Thighs of Bronze" in Daniel chapter 2. The leopard, being an extremely fast moving animal, is a very appropriate symbol for the Greek Empire. Alexander the Great, the famous Macedonian King, had conquered the entire Persian Empire in less than 10 years.

- **Had on its back four wings of a bird:** The leopard is a fast enough animal but a leopard with wings is an *extremely* fast animal, therefore alluding to the speed of Alexander's conquests. The four wings also represent the four regions into which the Greek empire divided after Alexander's death at the early age of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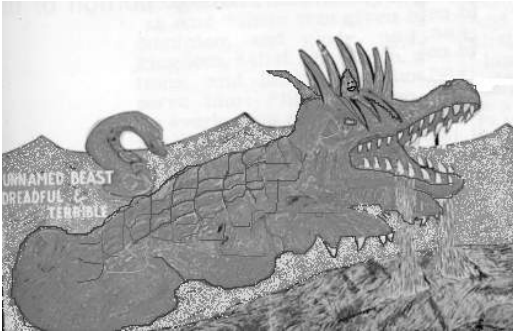
- **The beast also had four heads:** This symbolises the fourfold division of the Greek empire under the rulership of four of Alexander's generals after his death.



The 4 heads were:

- **Lysimachus:** Thrace, Bithynia, Northern Asia Minor, Pergamum.
- **Cassander:** Macedonia, Greece.
- **Seleucus:** Syria, Babylon, Persia.
- **Ptolemy:** Egypt, Palestine, Libya.

7. 네번째 짐승의 이상:



"...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 이가 있어서 먹고 부숴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 뿔이 있으므로." (다니엘 7:7)

로마제국과 뒤이은 분열 (BC 67-Present):

이 넷째 짐승은 "철로 된 종아리" (다니엘 2장)과 일치하고, 그 뿔은 "철과 진 흙으로 된 발"과 일치한다. 이 제국은 지금까지 알려진 인간역사상 가장 광대하게 되었고, 또한 그리스도의 때에 존재했었다. 이 짐승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계속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다니엘 7:11 과 Dan 7:13을 보라 - "인자가 와서 ..." = 예수님의 재림!)

-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이는 다니엘 2장에 나온 네번째 왕국과 연결된다.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으리니 ..." (다니엘 2:40). 로마제국의 강성함은 그 군사력과 엄격한 지배력과 후에는 그 종교에까지 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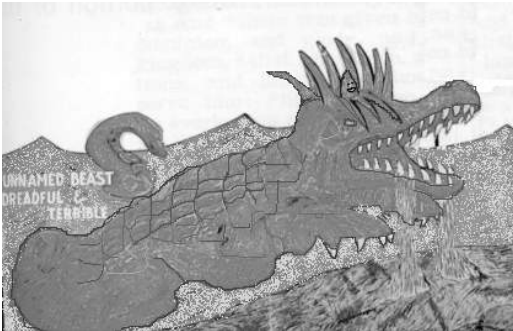
철 이가 있음: 이는 느부갓네살의 신상의 네번째 금속 (철)에 해당한다. 로마는 로마에 종속된 나라들에게 철 멍에를 지웠다.

- 먹고 부숴뜨렸다: 다니엘 2:40 에서 말하기를, "넷째 나라는 ... 그 나라가 못 나라를 부숴뜨리고 빵을 것이며." 로마 군대는 차례로 한 나라 한 나라씩 점령했고 그 당시 그 나라들을 그 철권 통치하에 지배하였다.



그 나머지를 발로 밟음: 로마 제국은 전의 세 짐승들의 모든 영토를 다 점령하지 못했다- 예. 바사. 이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그 발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다. (주의: 계시록 13:2 에 짐승이 "굶"의 발을 가지고 있다고 되어있다.)

7. THE VISION OF THE FOURTH BEA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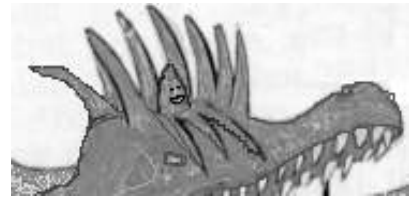


"... and behold, a fourth beast, dreadful and terrible, exceedingly strong. It had huge iron teeth; it was devouring, breaking in pieces, and trampling the residue with its feet. It was different from all the beasts that were before it, and it had ten horns." (Dan 7:7)

- **The Roman Empire and subsequent divisions (BC 67-Present):** The fourth beast corresponds to the "Legs of Iron" (Daniel Ch.2) and its horns correspond to the "Feet of Iron and Clay". This became the most extensive empire known in the history of mankind and was the kingdom existing at the time of Christ.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is beast continues until the second coming of Jesus Christ (see Dan 7:11 and Dan 7:13 - "*Son of Man coming...*" = return of Jesus!)
- **Dreadful and terrible, exceedingly strong:** This links with the fourth kingdom in Daniel Ch.2 which says, "*And the fourth kingdom shall be as strong as iron...*" (Dan 2:40). The strength of the Roman Empire lay with its military, strict administration and later on its religion.
- **It had huge Iron teeth:** Corresponds to the fourth metal (iron) in Nebuchadnezzar's image. Rome placed an Iron yoke on the nations which it subjected.
- **It was devouring, breaking in pieces:** Dan 2:40 says, "*And the fourth kingdom that kingdom will break in pieces and crush all the others.*" The Roman armies gradually conquered nation by nation and brought **most of the then** known world under its iron rule.
- **It Stamped the residue with its feet:** The Roman Empire never conquered the entire territory of previous three beasts - eg: Persia. This is yet to be fulfilled and will be done by its feet. (Note: Rev 13:2 says that the beast has "The feet of a bear".)



8. 넷째 짐승의 열개의 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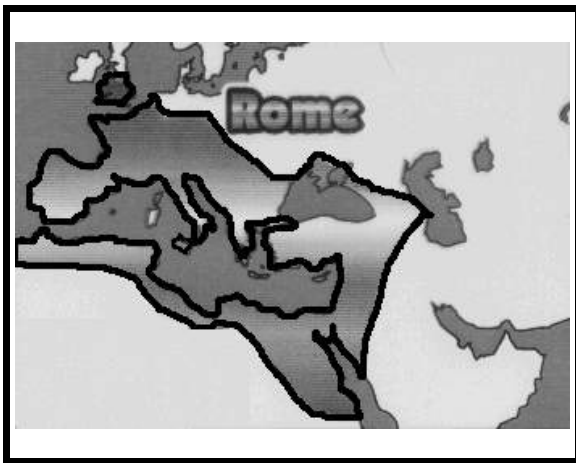


•

" . . . 열 뿔이 있으므로. " (다니엘 7:7): 이 짐승의 열 뿔은 서쪽 로마제국의 분열을 상징한다. 다니엘 7:24에 이렇게 쓰여있다, " 그 열 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또는 왕국)이요". 이 열 뿔은 느부갓네살 신상의 열 발가락에 상응한다 (다니엘 2:42). 이는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유럽"의 형성의 시초가 된다.

로마의 분열은 AD 5세기부터 시작되었고, 열 뿔들의 나라를 이루는 세력이 뒷따랐다. 이 세력은 훈족, 반달족, 서고트족, 동고트족, 프랑크족, 수에베, 브로군도, 게피대, 롬바르도, 알레마니였다.

로마제국의 영토
(분열 전)



AD481 의 로마 제국 분열
(즉 "열 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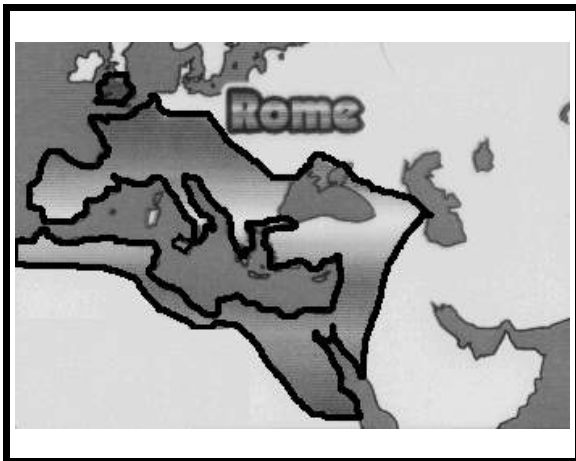


8. THE TEN HORNS OF THE 4TH BEAST:

- " . . . and it had ten horns. " (Dan 7:7): The ten horns of this beast symbolise the division of the Roman Empire in the West. Dan 7:24 says, "*The ten horns are ten kings (or kingdoms) who shall arise from this kingdom*". These correspond to the 10 toes of Nebuchadnezzar's image (Dan 2:42). These form the beginnings of what we know today as "Europe".

The division of Rome began in the 5th Century AD with the following powers comprising the ten horn kingdoms: Huns, Vandals, Visigoths, Ostrogoths, Franks, Sueves, Burgundians, Gepidae, Lombards, Alamani.

Territory of Roman Empire
(before division)



Division of Roman Empire in AD481
(ie" The 10 horns")



9 그 짐승의 "작은 뿔":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다니엘 7:8)

"다른 작은 뿔" - 이 열 한번째 뿔은 열 뿔 사이에서 나왔고, **476 AD** 로마의 분열 후 유럽에서 중심이 된 종교적 세력을 나타낸다. 우리의 역사 중 이 설명에 걸맞는 단 하나의 세력은 바로 신성 로마 제국으로 알려짐으로 전성기

에 이르렀던 교황권이다.

작은 뿔의 특성에 대해 생각해 보자:

•

다른 뿔 사이에서 남 (8절): 교황권은 로마 황제 유스티니안 (콘스탄티노플의 동쪽에 기반을 둠)이 로마의 주교가 "전 세계적인" (카톨릭) 주교라고 주장함으로써 유럽에서 시작되었다. 이 일은 **529AD**에 일어났고 이 때는 열 뿔이 나타난 후였다.

•

그 모양이 동류보다 강하여 보인 것이라 (20절): 이 새로운 뿔은 사실상 다른 뿔보다 강하여졌다. 교황권은 "신성 로마 제국"의 시기에 그 전성기를 맞았다. 신성 로마 제국은 **799 AD**, 프랑크족 (독일)왕 샤를마뉴가 교황 레오 3세에 의해 "황제"로 임명받음으로써 형성 되었다. 이는 교황과 황제를 "신성 로마 제국"의 공동 동치자로 만들었다. 이 큰 제국은 **1000년**동안 지속 되었고 프랑스 혁명 이후 쇠퇴하였다.

9 THE "LITTLE HORN" OF THE BEAST:



" I was considering the horns, and there was another horn, a little one, coming up among them, before whom three of the first horns were plucked out by the roots. And there, in this horn, were eyes like the eyes of a man, and a mouth speaking pompous words." (Dan 7:8)

"Another Horn, a little one" - This 11th horn was to come up among the other 10 horns, representing a religious power which would be centred in Europe af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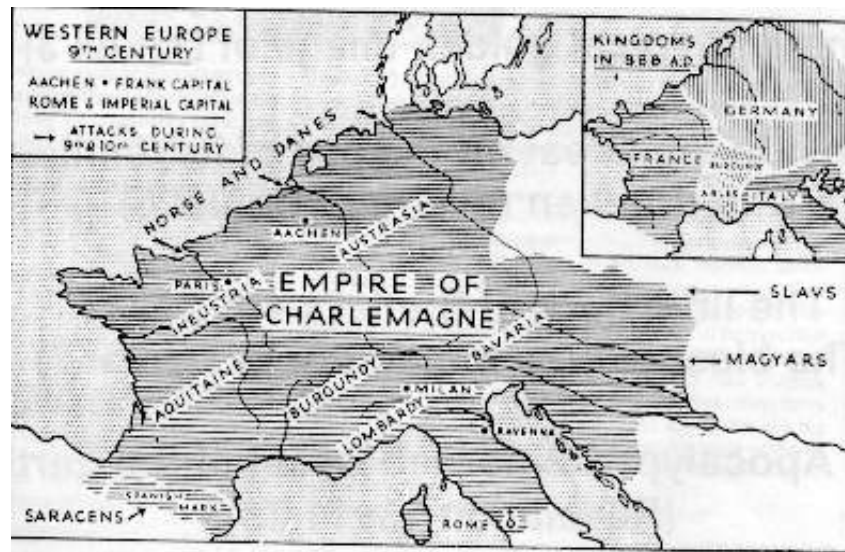
the division of Rome in 476AD. The only power in history which answers to this description is that of the Papacy, culminating in what was known as the Holy Roman Empire.

Consider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of the Little Horn:

- **It came up among the other horns (v8):** The Papacy had its true beginning in Europe when the Roman Emperor Justinian (based in the East at Constantinople) proclaimed the Bishop of Rome as "Universal" (Catholic) bishop. This occurred in the year 529AD which was after the 10 horns had emerged.
- **Its appearance was greater than the other horns (v20):** This new horn actually became greater than all the other horns. The Papacy reached its climax during the period of "The Holy Roman Empire". The creation of the Holy Roman Empire took place when the Frankish (German) King, Charlemagne was crowned "Emperor" by Pope Leo III in the year 799AD. This made the Pope and the Emperor co-rulers in the Holy Roman Empire". This large kingdom lasted for 1000 years declining after the French Revolution.

그 짐승의 “작은 뿔” (계속.)

AD 9세기의 신성로마 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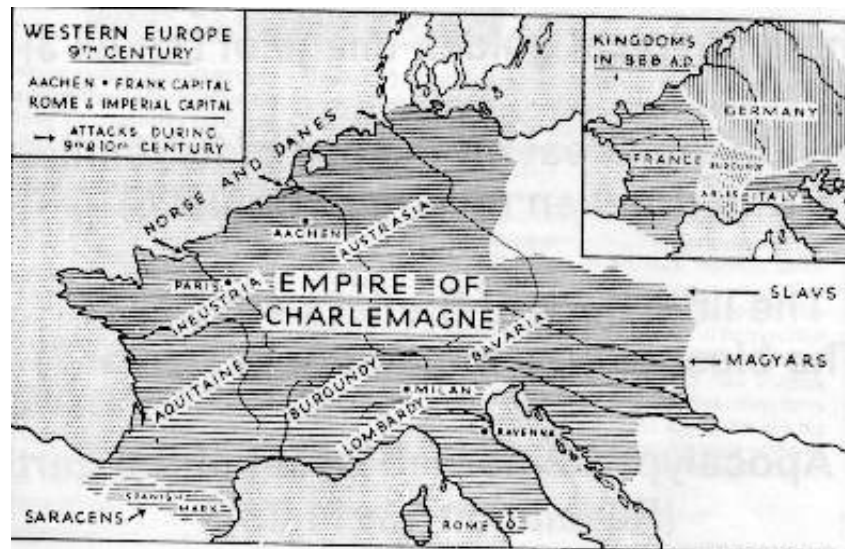


-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8절): 교황권은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군대를 동원해 이를 반대하는 종교나 정치 세력을 멸하게 하였다. 멸망당한 세 뿔은 다음을 포함한다 (모두 아리우스파였음):

 - 반달족이 534AD에 유스티니아누스에 의해 멸망함.
 - 동고트족이 555AD에 유스티니아누스에 의해 멸망함.
 - 롬바르도가 774AD에 샤를마뉴에 의해 멸망함.
-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24절): 이 작은 뿔에는 눈과 입 (8절)이 이 뿔을 차별화 시켰다. 이는 교황의 이름 “주교관구”(눈)와 “교황의 교서”(입)라 불리는 법에 관한 책에 암시되어 있다.
-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하나님)를 대적하여 (25절): 이 문장은 그 작은 뿔이 “종교적” 세력 즉, “신성” 로마 제국임을 명시한다.
-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25절): 신성 로마 제국의 재현, 즉 교황권은 그의 가르침에 반대하는 자는 누구나 심한 고문이나 사형을 당하게 하였다. “스페인의 종교 재판”과 1572AD 프랑스의 위그노 대량 학살은 박해의 몇가지 예일 뿐이다.

THE "LITTLE HORN" OF THE BEAST (Cont.)

The Holy Roman Empire in the 9th Century AD



- **It Plucked up 3 of the 10 horns (v8):** The Papacy, in the name of God, encouraged armies to destroy any religious and political opposition to it. The three horns destroyed (all which had Arian beliefs) were:
 - The Vandals by Justinian in 534AD.
 - The Ostrogoths by Justinian in 555AD.
 - The Lombards by Charlemagne in 774AD.
- **It was different to the other horns (v24):** This horn had eyes and a mouth (v8) which made it different. This alludes to the name "The Holy SEE" for the Pope (eyes) and the issue of laws called "Papal Bulls" (mouth).
- **It spoke pompous words against the Most High God (v25):** This statement makes this horn a "Religious" power hence the name "Holy" Roman Empire.
- **It would persecute the saints of the Most High God (v25):** The Papacy, with the backing of the Holy Roman Empire, tortured and put to death anyone who opposed its teaching. The "Spanish Inquisition" and the Massacre of the Hugenots in France in 1572AD were just some examples of this persecution.

10.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짐:

"내가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바 되었으며...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인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하여." (다니엘 7:11,27)

-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11절):** 넷째 짐승은 "인자"가 옴으로써 결국 멸망하
 게 될 것이다 (v13). 이것은 다니엘 2장에 나온 느부갓네살 신상이 돌 (예수 그리스
 도)에 의해 부수진 것에 상응한다
- **나라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인바 되리니 (27절):** 나라는 하나
 님의 백성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양도 될 것이다. 이는 그 돌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
 계에 가득함."을 상징한다 (다니엘 2:35).
-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다 (27절):** 하나님의 왕국은 멸망하지 않고 오
 히려 영원할 것이다. 다니엘 2:44 에, "영원히 설 것이라"라고 되어있다. 또한, 요한
 계시록 11:15의 말씀은 이 이상의 마지막에 관련해 아래와 같이 명확하게 말하였
 다....

**"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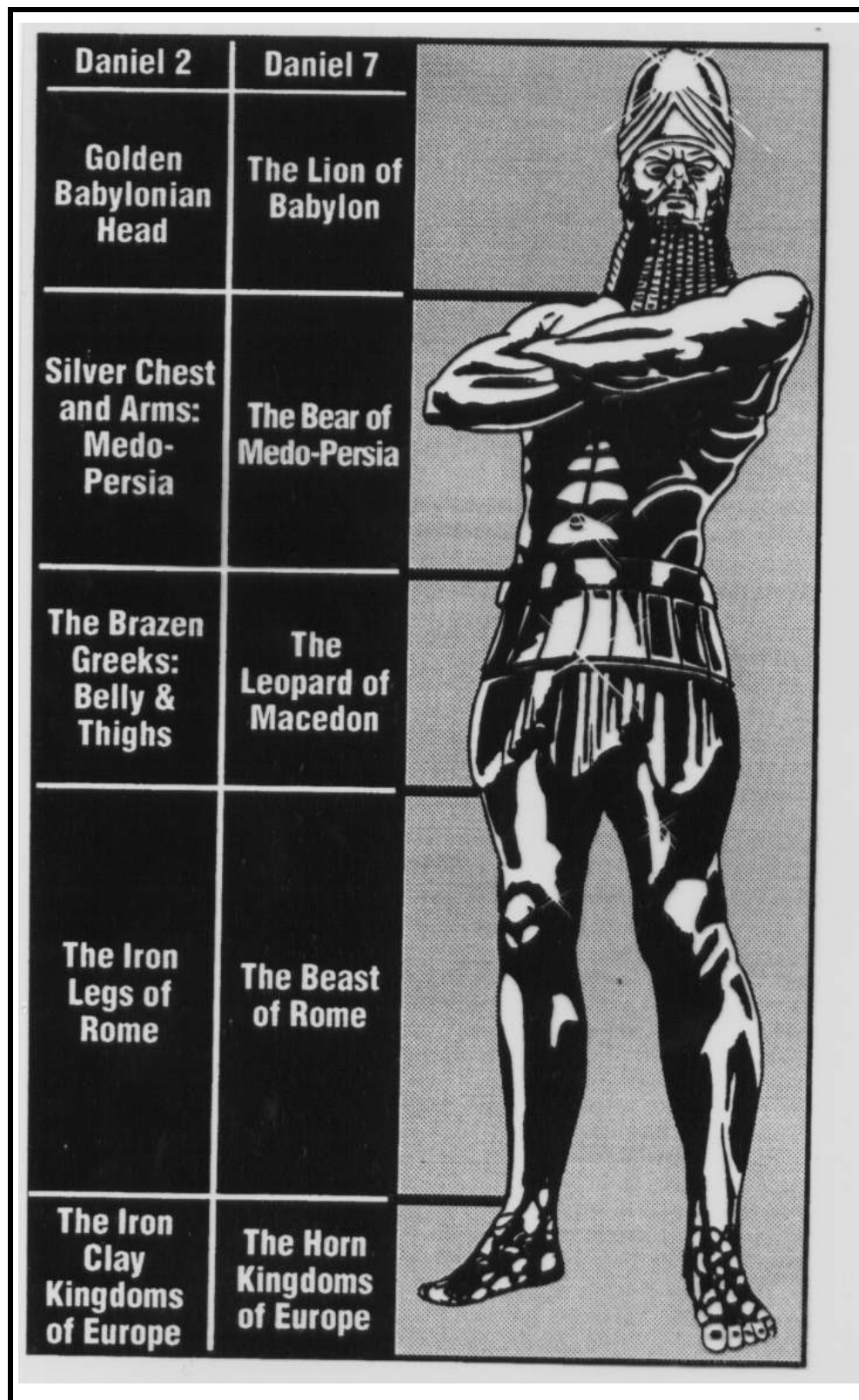
10. THE KINGDOM OF GOD IS ESTABLISHED:

" I watched till the beast was slain, and its body destroyed and given to the burning flame. . . . Then the kingdom and dominion, And the greatness of the kingdoms under the whole heaven, Shall be given to the people, the saints of the Most High. His kingdom is an everlasting kingdom, And all dominions shall serve and obey Him." (Dan 7:11,27)

- **The beast was slain (v11):** The fourth beast will be finally destroyed at the coming of the "Son of Man" (v13). This corresponds to the striking of Nebuchadnezzar's Image by the Stone (Jesus Christ) in Daniel Ch.2.
- **The kingdom given to the saints of the Most High God (v27):** The Kingdom is then transferred to the people of God and to Jesus himself. This is also symbolised by the Stone becoming a "*Great Mountain, filling the whole Earth*" (Dan 2:35).
- **The kingdom lasts forever (v27):** The Kingdom of God will not be destroyed but will be an everlasting kingdom. Daniel 2:44 says, "*It shall stand forever*". Also, the words of Revelation 11:15 link in with the end of this vision with these reassuring words

*" The kingdoms of this world
have become the kingdom of our
Lord and of His Christ, and He
shall reign forever and ever! "*

11. 다니엘 2장과 7장의 비교:



11. COMPARISON BETWEEN DANIEL CHAPTERS 2 AND 7:

